‘급발진 주장’ 사고 50대 이하가 57%… 고령자보다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통계

고령운전자 사고 노인 혐오로 확산 말아야
전문가 “급발진 방지 장치 도입 확대 필요”

시청역에서 역주행해 9명의 사망자를 낸 68세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작 급발진 사고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맹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 운전자들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총 456건이며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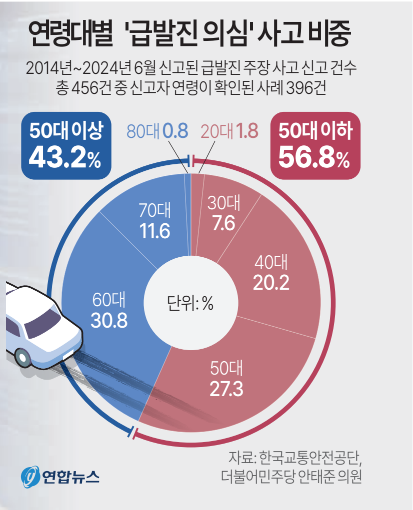
신고자의 연령별로 보았을 때 60대가 122건(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50대가 108건(27.3%)·40대가 80건(20.2%)·70대가 46건(11.6%)·30대가 30건(7.6%)·20대가 7건(1.8%)·80대가 3건(0.8%)의 순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과 50대 이하의 급발진 주장 신고를 비교해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 운전자에 의한 사고 신고는 43.2%로, 50대 이하에서 신고한 사례 5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고령층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여론이 맹점을 지녔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1일 밤에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2일 오후 사고로 파손된 오토바이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고령 운전자 제한 논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노인 혐오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 교육 권장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운전 제한과 같은 사후 제재 방식에 집중하기보다 전방 차량이나 사람을 감지해 자동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장착을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만을 탓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를 접수한 차량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3~2018년 급발진 추정 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03건(75%)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판정됐다.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장치를 밟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전기 택시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65세 운전자는 우회전하던 중 급발진이 발생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페달 블랙박스를 판독한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밟은 것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회전 직후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속도가 높아지자 당황하면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채 계속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라며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는 AEBS·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군산 시간당 146mm 물폭탄… 충청·영호남 피해 속출

새벽 기록적 폭우에 침수·범람
4명 사망 1명 실종… 곳곳 고립
열차 운행 중단·항공기 결항도

10일 새벽 충청과 전라·경남권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4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주로 이른 새벽 시간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다고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주택이 잠기는가 하면 주민이 고립돼 구조되거나 대피하기도 했다.

전북 익산·충남 부여의 누적 강수량이 20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산 어청도는 시간당 146.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전국 기후 관측지점 기준 1시간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100㎜를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됐으며 서천과 부여는 각각 111.5㎜와 106.0㎜의 1시간 최대 강수량이 기록됐다. 충남 논산·금산과 대전 등에서도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다. 새벽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소방본부에는 80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충청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희생자도 나왔다. 논산에서는 한 남성이 지하 1층까지 물에 잠긴 오피스텔 승강기에 갇혀 숨졌고 서천군 비인면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이 매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충북 옥천군 삼청리에선 둑길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구조했으나 끝내 숨졌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일대는 광범위하게 침수되고 논산과 부여 등지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신고가 속출했다. 서천군은 이날 오전 5시35분부터 마서면 덕암리 지하차도와 옥북리 도로를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하는 등 지역 내 다수의 도로를 통제했다.

논산시는 탑정저수지가 가득 차 방류함에 따라 성동면·부적면·강경읍 등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는 산사태가 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통제됐다.

이날 충남에서는 하천 제방 17곳이 유실되고 교량·도로 1곳이 각각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25건이 피해를 봤다. 주택 1곳·상가 3곳·축사 15곳 등 사유시설 24곳도 파손되고 농경지 30.72ha도 물에 잠겼다.

전북 지역도 피해가 컸다. 군산은 시간당 146.0㎜의 폭우를 기록하며 200년에 한 번 올 확률의 강수를 보였다. 전북 익산·서천·부여 등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0㎜를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군산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0일 오전 5시 기준 산사태 2건·침수 94건·수목전도 7건·역류 4건 등 10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새벽 사이 경찰과 소방에 인명 구조 18건을 포함한 7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4시쯤 완주 운주면에서 주민 18명이 고립되었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오전 6시20분쯤 군산 옥도면에서 닻을 내렸던 선박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선원 4명이 구조됐다. 농작물 피해도 커져 오전 9시 기준 5개 시군에서 344ha 면적이 침수됐다.

10일 폭우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엄목마을 앞 장선천 제방이 무너져 도로가 끊기고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경북 지역 역시 상황이 심각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상주 288.3㎜·예천 243.8㎜·안동 229.7㎜·의성 228.2㎜·봉화 224.0㎜·성주 214.1㎜·문경 213.1㎜ 등 도내 전역에서 평균 177.5㎜의 비가 내렸다. 특히 상주 모서는 411.0㎜·의성 다인은 344.5㎜·안동 와룡은 314.0㎜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 파손·하천 유실·농경지 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경북에서는 통신장애 4건·정전 97가구·도로 사면유실 6건·도로 파손 3건·낙석피해 2건·하천 유실 17곳이 발생했다. 상하수도 피해 4건·수리시설 피해 2건·국가유산 피해 6건·교육시설 피해 18건·주택 반파 5채·침수 30채도 보고됐다. 농작물 피해는 914.9ha로 늘었고 돈사 1곳 침수·버스노선 6곳 운행 중단·도로 통제 44곳이 있었다. 이날 경북소방본부는 315건의 출동을 기록했다.

집중 호우로 열차와 여객선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무궁화호와 ITX-새마을 등 일부 열차 운행을 중지하거나 조정했다. 장항선·경북선은 오후 6시까지, 충북선과 경부선은 오전 9시까지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여객선도 53항로 중 10항로가 결항됐다. 김해공항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항공편 21편이 결항되고 16편이 지연 운항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